

영주 순흥 신라 벽화고분의 가치와 의의

전 호 태*

목 차

- I. 머리말
- II. 역사학적 가치
- III. 고고학·미술사학적 가치
- IV. 종교학·민속학적 가치
- V. 맺음말

국문초록 | 영주 순흥에서 발견된 읍내리벽화분과 어숙지술간묘의 구조와 벽화는 여러 측면에서 의의와 가치를 지닌다. 역사학적 측면에서 두 고분은 6세기 영주 지역문화의 양상을 잘 보여준다. 고구려로부터 전한 불교 전파의 거점이자 통로로서 영주가 주요한 역할을 했음을 확인시켜 준다.

고고학 및 미술사학 측면에서 보면, 신라에 황구식 석실묘가 수용되고, 황혈식 석실묘가 확산되는 과정이 영주 순흥지역 고분에 잘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두 고분벽화는 신라에 새로운 장의 미술이 수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읍내리벽화분과 어숙지술간묘 벽화는 불교적 제재를 주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6세기 신라에도 불교 미술 활동이 있었음을 알게 한다. 두 고분벽화의 개별 제재에 적용된 표현기법은 6세기 신라 회화의 새로운 동향을 알려준다.

종교학적 측면에서 영주 순흥의 2기 고분벽화는 6세기 신라 지방 불교의 현황을 알게 해준다. 전래의 내세관을 대신하는 불교적 내세관을 내면화하고 이를 고분벽화

* 全虎兌, 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jhtbh@daum.net

투고일: 2021. 11. 03. 심사완료일: 2021. 12. 14. 게재확정일: 2021. 12. 15.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1.41..7>

라는 새로운 미술 장르로 표현하는 문화적 변화가 영주 순흥지역에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민속학적 측면에서 읍내리벽화분과 어숙지술간묘 벽화는 재생력을 지닌 신수로서의 뱀에 대한 신앙이 불교라는 새로운 종교 안에 흡수되어 그 일부로 자리 잡게 되었음을 알려준다. 순흥 읍내리벽화분에 그려진 버드나무는 동북아시아 여러 민족에게 벽사의 신목으로 신앙되던 버드나무에 대한 관념이 신라에서는 불교 신앙의 일부로 수용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전통적으로 귀걸이는 신분과 지위, 소속 집단을 드러내는 표식이다. 읍내리벽화분에 묘사된 역사 귀의 귀걸이는 무덤 주인을 지키는 역사가 천왕이나 신장임을 알게 해준다. 이는 무덤 주인의 생전 지위와 주인이 누릴 내세 삶의 가치를 알려 주는 장치이기도 하다.

핵심어 | 신라, 불교, 읍내리벽화고분, 어숙지술간묘, 지역문화

I. 머리말

영주 순흥에서 발견, 조사된 2기의 벽화고분은 삼국시대 신라와 고구려의 국경지대에 축조된 석실고분군에 속한다. 동시에 삼국시대 신라에서는 낯설다고 할 수 있는 벽화라는 장의 미술 활동이 이루어진 유적이기도 하다. 이 두 가지 사실로 말미암아 두 벽화고분은 발견 직후 세인의 눈길을 끌었다.¹⁾

그러나 순흥 읍내리벽화분과 어숙지술간묘는 여러 차례 도굴된 상태에서 발견되었고 벽화 보존 상태도 양호하지 않았다. 이런 까닭에 고분벽화의 제작 시기나 무덤 주인의 정체성을 둘러싼 논란이 잠시 제기된 뒤에는 세인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더욱이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 일대에서 새롭고 의미 있는 발견과 조사가 잇따라 이루어지면서 영주 일원에서 이루어진 고고학적

1) 영주 순흥의 2기 벽화고분에 대한 발굴 및 조사 보고는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문화재연구소, 대구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이루어졌다<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영주 순흥벽화고분 발굴조사보고』, 1984; 문화재연구소, 『순흥 읍내리벽화고분』, 1986; 문화재연구소·대구대학교박물관, 『순흥 읍내리벽화고분 발굴조사보고서』, 1995>.

조사 결과는 지닌 의미가 적지 않았음에도 관련 연구자들 사이에서만 공유되고 논의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게 일반적이었다.

삼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차원의 지역 간 교류와 그로 말미암은 지역 사회의 변화 양상에 방점을 둔다면 영주 순흥의 2기 벽화고분은 문화사, 예술사, 종교사적 측면에서 작지 않은 가치와 의미를 지닌 유적이라고 할 수 있다.²⁾ 특히 불교의 수용과 확산을 계기로 신라가 동아시아의 변방에서 일약 동북아시아 중심 국가로 탈바꿈하게 됨을 고려하면 영주 순흥 읍내리벽화분과 어숙지술간묘에 담긴 역사적 의미와 가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무게감을 지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고는 이런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펼쳐나가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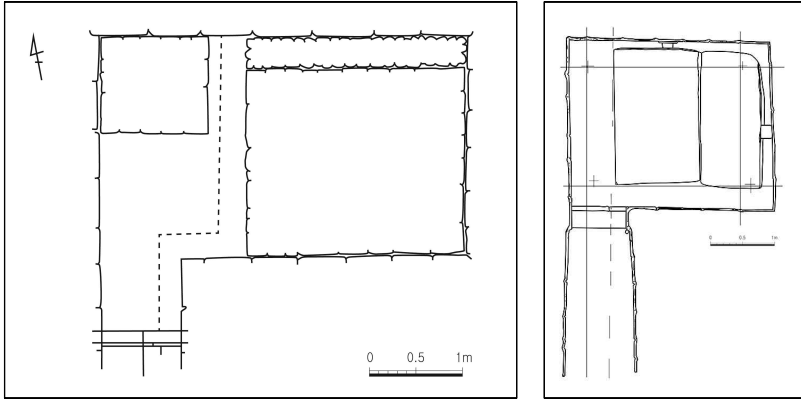
Ⅱ. 역사학적 가치

1. 6세기 영주 지역문화의 변화

6세기 이른 시기와 늦은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 영주 순흥 읍내리벽화분과 어숙지술간묘는 소백산맥의 줄기인 비봉산 기슭에 있다. 순흥 읍내리벽화분은 1985년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와 대구대학교박물관이 합동으로 발굴하였고, 어숙지술간묘는 1971년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이 조사하였다. 읍내리벽화분은 외방의 횡혈식 석실묘로 무덤칸 방향은 남향이다<그림 1>. 널길은 길이×너비 0.91×0.77m이고, 널방은 남북길이×동서너비×높이 2.02×3.53×2.05m이다. 시신을 안치한 시상대의 길이×너비×높이는 2.02×2.01×0.67m이다. 벽과 천장에 회를 바르고 벽화를 그렸으나 많은 부분

2) 안휘준, 「기미년명 순흥 읍내리고분벽화의 내용과 의의」, 『순흥읍내리벽화고분』, 1986, 61~98쪽; 이태호, 「高句麗와 新羅 미술이 공존하는 榮州 順興의 邑內里壁畫古墳과 台庄里 於宿墓」, 『미술자료』 79, 2010, 19~42쪽.

이 박락된 상태에서 발견되었다. 널방 남벽 상단에서 “己亥中墓像人名□□ <기해에 묘상인의 이름은 □□>”로 읽을 수 있는 묵서 명문이 발견되었다.³⁾



<그림 1> 순흥 읍내리벽화분 무덤칸 실측도

<그림 2> 순흥 어숙지술간묘 무덤칸 실측도

순흥 어숙지술간묘는 외방의 황혈식석실묘로 무덤칸 방향은 남향이다 <그림 2>. 널길의 길이는 2.6m이며 널방은 동서가 긴 장방형으로 남북길이×동서너비 2.45~2.50×3.10~3.14m이다. 널방 입구에 외쪽의 돌문을 설치하였으며, 돌문의 높이×아래 너비×위 너비는 각각 1.29×0.94×0.81m이다. 널방 벽과 천장에 회를 바르고 벽화를 그렸으나 습기 등으로 대부분 박락되었다. 돌문 안쪽에 ‘乙卯年於宿知述干’으로 읽을 수 있는 명문이 새겨진 상태로 확인되었다. 순흥 읍내리벽화분과 어숙지술간묘의 구조와 벽화 제재의 구성 방식을 알기 쉽게 정리하면 표1>과 같다.

3) 조사자들이 ‘己未’로 읽고 보고한 뒤, 연구자들에 의해 수용되었던 순흥 읍내리벽화분 묵서 명문의 간지는 김재홍, 「함안 성산산성과 출토 목간의 연대」, 『木簡과文字』 22, 2020, 25쪽에 제시한 견해를 받아들여 ‘己亥’로 읽는다.

<표 1> 영주 순흥 벽화고분의 구조와 벽화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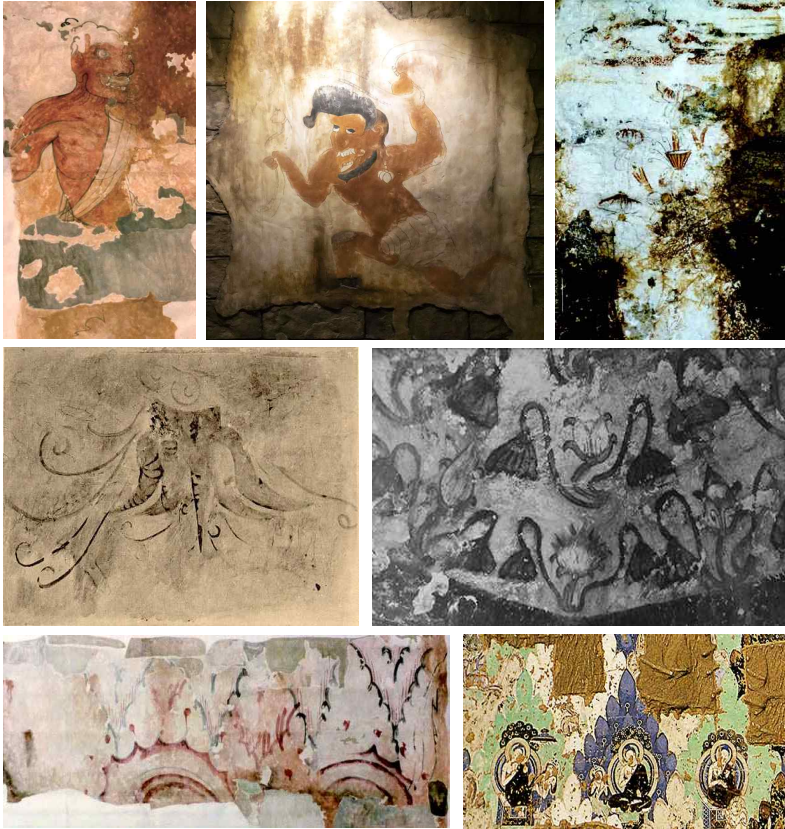
구분	널길		널방					기타
	벽	천장	남벽	동벽	서벽	북벽	천장	
읍내리벽화분	동벽: 역사	?	목서 명문, 삼지 창을 권 인물	새 <해?> , 산 <?>	뱀을 권 역사, 버드 나무	산, 구름, 새, 꽃봉오 리, 연못	?	시상대 : 장식무 늪
어숙지술간묘	?	연꽃	?	?	?	?	?	돌문: 바깥면 - 두 여인, 안쪽면 : 명문

순흥 읍내리 고분벽화는 그려진 제재들이 불교와 관련이 깊다.⁴⁾ 무덤 널길 동벽과 널방 서벽에 그려진 역사<力士>는 연못이 묘사된 널방, 일종의 불교적 내세 공간을 지키는 존재다<그림 3, 4>. 널길 동벽 역사의 벗은 몸을 덮은 右肩褊袒은 불교의 여래와 승려에게서 볼 수 있는 이국적인 옷차림이다.

읍내리벽화분 널방 북벽에 일부 남아 있는 연못 그림도 불교와 관련이 깊다<그림 5>. 활짝 핀 뒤 연밥이 자라 올라온 상태의 연꽃을 그린 화가는 성총이나 통구12호분, 장천1호분 등에 化生이 이루어지기 직전이나 직후의 연꽃을 그리던 고구려의 화가를 떠오르게 한다<그림 6, 7>.⁵⁾ 비록 두어 송이만 남은 연꽃이지만 그 위에 구름이 묘사된 것으로 보아 불교의 하늘세계나 정토의 연못 관념이 투사된 그림의 한 부분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4) 전호태, 「영주 신라 벽화고분 연구」, 『선사와 고대』 64, 2020, 67~90쪽.

5) 전호태,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사계절, 2000, 169~170쪽.



- <그림 3> 순흥 읍내리벽화분 널길 동벽 벽화 모사도: 문지기 역사
- <그림 4> 순흥 읍내리벽화분 널방 서벽 벽화 모사도
- <그림 5> 순흥 읍내리벽화분 널방 북벽 벽화 연못
- <그림 6> 남포 성종 널방 서벽 벽화 화생 직전의 연꽃
- <그림 7> 집안 통구12호분 남분 천장고임 벽화 연꽃
- <그림 8> 순흥 읍내리벽화분 널방 시상대 벽화 모사도
- <그림 9> 쿠차 키질 석굴사원 벽화 여래본생담

문지기 역사 및 연못과 함께 주목되는 그림은 읍내리벽화분 널방 시상대에

그려진 장식무늬이다<그림 8>. 고구려 고분벽화의 삼각화염문과 비교되는 이 장식무늬는 언뜻 보면 5호16국시대 북중국 석굴사원 벽화에 보이는 如來本生譚의 배경 화면을 연상시키기도 한다<그림 9>. 이런 사실들을 아울러 고려하면 순흥 읍내리 고분벽화를 의뢰한 사람들과 그림을 담당한 화가에게 불교적 제재와 관념이 내세관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보인다.

순흥 읍내리벽화분의 벽화는 6세기 전반의 이른 시기 양식으로 그려졌다.6) 무덤 안에서 발견된 목서 명문 중의 기해년은 519년(법흥왕 6년)이나 579년(진지왕 4년)이다. 6세기 중엽 이전 간지에 ‘中’을 붙여 ‘~에’로 읽던 관습이 있었다는 견해를 고려하면 무덤의 목서 명문은 519년에 쓰인 것이다.7) 고구려와 백제로부터 새로운 회화 양식이 전파되어 신라의 변경에서 고분벽화로 그려질 때까지의 시간적 경과를 고려하면 읍내리 고분벽화의 제작 시기는 579년경이다.

순흥 어숙지술간묘 널길 천장에 그려진 활짝 핀 연꽃도 전형적인 불교적 제재라고 할 수 있다. 활짝 핀 3중관 형식의 이 연꽃은 화가가 이러한 종류의 연꽃 그리기에 이미 익숙한 상태임을 알게 한다. 상당히 세련된 필선으로 묘사된 무덤 널방 돌문의 천녀<天女>도 불교적 관념이 투사된 존재일 가능성이 크다. 어숙지술간묘에 새겨진 명문 중의 을묘년은 595년(진평왕 17년)으로 추정되고 있다.8)

신라에 불교가 전해진 시기는 실성마립간(재위 402~417)이나 눌지마립간(재위 417~458)대로 추정된다. 하지만 신라에서 불교가 공인되기는 이로부터 100여 년이 흐른 528년(법흥왕 15년)이다. 고구려에서 온 승려 목호자는 일선군(현 구미시 선산읍)의 유력자 모례의 후원을 받으며 신라의 수도 서라

6) 전호태, 앞의 논문, 2020, 67~90쪽.

7) 김재홍, 앞의 논문, 2019, 15~33쪽.

8) 진홍섭, 「新羅於宿述于墓發見의 意義」, 『梨大學報』 447; 김원룡, 1980, 『韓國壁畫古墳』 일지사, 1971, 137쪽.

벌에서도 포교 활동을 해보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고, 결국 모례가 마련해준 토굴에서 입적했다.⁹⁾ 소지마립간(재위 479~500)대에는 한 승려가 신라의 궁궐에서 후원자를 찾아내 內殿에서 향을 피우고 기도하는 일까지 해냈다. 하지만 토착 종교 사제와 추종자들의 견제와 압박을 견뎌내다가 모종의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고 후원자와 함께 죽임을 당하였다.¹⁰⁾

6세기 전반은 신라의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확대해가던 불교가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왕명으로 공인받은 시기이다.¹¹⁾ 이차돈의 순교와 관련 있다고 추정되는 천경립 훼손과 흥륜사 창건은 토착 종교의 쇠퇴, 혹은 위축과 불교 신앙의 주도권 확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¹²⁾ 토착 신앙에 바탕을 둔 귀족 세력의 거센 반발과 압박은 이차돈의 순교, 왕실의 불교 공인 강행을 계기로 사그라졌다.

고구려 승려 목호자가 신라와 백제 사이 국경지대이던 일선군에서 후원자를 얻고 포교했던 사실을 고려하면 북으로부터 내려오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영주 일원에 일찍부터 불교 신앙이 전해져 확산했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 비록 수도 경주 일대에서는 기존 종교 신앙이 주도권을 잡고 있을지라도 신라 국경지대 종교 신앙의 흐름은 이와 다를 수 있는 것이다. 6세기 동아시아 문화의 큰 흐름이 불교를 중심으로 펼쳐져 나갔음을

9) 十五年 … 初訥祇王時 沙門墨胡子 自高句麗至一善郡 郡人毛禮 於家中作窟室安置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4, 法興王 15年.

10) 王然之開見 書中云 射琴匣 王入宮見琴匣射之 乃內殿焚修僧與宮主潛通而所好也 二人伏誅 自爾 國俗每正月上亥上子上午等日 忌慎百事 不敢動作 以十五日爲烏忌之日 『三國遺事』卷1, 「紀異」1, 射琴匣; 주보돈, 「삼국유사 ‘射琴匣’條의 이해」, 『신라문화재학술논문집-신라 내물왕계와 중고기의 비약적 발전』, 2019, 59~98쪽; 신종원, 『삼국유사 깊이 읽기』, 주류성, 2019.

11) “異次頓臨死曰 我爲法就刑 佛若有神 吾死必有異事 及斬之 血從斷處湧 色白如乳 衆恠之不復非毀佛事”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4 法興王 15年>.

12) 鄉傳云, 髑爲以王命傳下與工創寺之意, 羣臣來諫, 王乃責怒於髑, 刑以爲傳王命 『三國遺事』卷3, 「興法」3, 原宗興法 厭髑滅身.

고려하면 신라 변경지역도 이의 문화적 영향을 작지 않게 받았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

영주의 2기 벽화고분은 6세기 신라의 지역문화가 중앙과는 결이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수도 경주 일원에서는 日甬으로 대표되는 기존 신앙과 제의 위주로 종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고구려와의 접경 지역이던 영주 일대에서는 고분벽화라는 새로운 장의 미술이 수용되어 불교적 제재가 무덤 안에 그려지는 변화가 일어났다. 고구려에서 전해진 불교가 새로운 종교 신앙으로 받아들여지는 정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존의 내세관을 대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이다.

2. 불교 전파의 거점이자 통로로서의 영주

400년 신라가 고구려 광개토왕의 도움으로 가야와 왜 연합군의 침입을 물리친 이래 영주 순흥 일대는 신라의 영토이면서도 고구려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치던 지역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¹³⁾ 5세기에 순흥 읍내리고분군의 무덤 형식이 횡구식 석실묘에서 횡혈식 석실묘로 바뀌는 것도¹⁴⁾ 이런 정치·사회적 흐름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三國遺事』에는 놀지마립간대에 고구려에서 온 승려 목호자에 이어 아도도 소지마립간대에 일선군으로 들어와 모례의 집을 신라에서의 불교 전파를 위한 거점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¹⁵⁾ 일선군은 날이군(영주) 보다

13) 김현숙은 순흥이 고구려의 급별산군이었다가 신라의 급산군이 되었다는 『삼국사기』의 기사에 근거하여 고구려의 직접적 영향력이 소백산맥 이남에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金賢淑, 「4~6세기경 小白山脈 以東地域의 領域向方 三國史記 地理志의 慶北地域 高句麗郡縣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26, 2002, 75~114쪽)

14) 이한상, 「읍내리 분묘군의 편년을 통해 본 5세기 순흥지역의 위상」, 『역사문화연구』 19, 2003, 1~34쪽.

15) 又至二十一毗處王時, 有我道和尚與侍者三人亦來毛禮家, 儀表似墨胡子. 住數年無疾而

남쪽이고 신라의 수도 경주에 더 가깝다. 기록은 남아 있지 않으나 목호자를 비롯한 고구려의 승려가 신라의 영역에 처음 밟 디딘 곳은 날이군이고, 여기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 일선군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크다.¹⁶⁾ 날이군은 소지마립간이 국경지대를 순행하다가 파로의 딸 벽화를 만난 곳이기도 하다. 고구려에 불모로 간 왕제 복호를 구하려던 놀지마립간이 리이촌간 파로 같은 날이군 유력자의 의견을 무게감 있게 받아들인 까닭도 이곳의 유력자들이 죽령 이북 고구려군의 동향을 비롯한 외부 정보에 밝았기 때문일 것이다.¹⁷⁾

이런 여러 정황과 기록으로 보아 영주의 유력자들은 신라 중앙정부의 허락 아래 상당한 수준의 자치를 누렸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진한연맹체 단계에서 경주에서 가까웠던 소국의 지배자들이 사로국 세력에 복속한 뒤 서라벌로 이주당하여 중앙 관위체계 안에 편입되어 지낸 것과 달리 진한연맹체 외곽에 있던 소국 지배자들은 지역 지배 기반을 유지하는 대신 사로국의 변경을 지키는 역할이 맡겨진 것과 관련이 깊은 듯하다. 특히 날이군 같이 고구려 세력의 남하를 최전선에서 막아야 하는 전략적 위치에 있는 지역의 지배자들에게 맡겨진 역할은 그 무게감이 작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듯하다.

날이군의 경우, 맡겨진 역할이 무거운 대신 자율적 지배가 상당한 수준으로 허용된 까닭에 새로운 종교인 불교의 전래와 정착이 상대적으로 쉬웠을 가능성이 크다. 비록 북방의 고구려에서 전해졌지만, 이름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서역 출신의 승려가 전한 새로운 신앙 세계는 날이군의 유력자들에게 낯설면서도 신비롭고 의미 있게 받아들여졌을 수 있다. 아마도 날이

終, 其侍者三人留住講讀經律, 徃往有信奉者 『三國遺事』 卷3, 「興法」3, 阿道基羅.

16) 필자는 영주 순흥을 거쳐 선산까지 이른 서역 출신 고구려 승려가 신라의 서울 경주에서도 불교를 전하려 애쓰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정리한 적 있다. (전호태, 『황금의 시대 신라』, 풀빛, 2019)

17) 及訥祗王即位 思得辯士往迎之 聞水酒村干伐寶靺一利村干仇里迺利伊村干波老三人有賢智 『三國史記』 卷45, 「列傳」5 朴堤上.

군과 같은 변경지대에서는 새롭고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거부감도 다른 지역보다 낮았을 수 있다.

기록으로 확인할 수는 없어도 신라에서 불교가 처음 전해져 자리 잡은 곳은 영주 순흥 일대였을 것이다. 일선군의 유력자 모례와 같은 인물이 순흥에도 있었을 것이나 그가 누구였는지 알 수 없다. 순흥의 2기 벽화고분은 이와 관련하여서도 주목될 필요가 있다.

한 사회가 지닌 특정한 관념 가운데 가장 보수적인 것이 내세관이다.¹⁸⁾ 내세관은 종교관, 세계관을 하나로 모아 정리한 것이어서 종교 신앙이 바뀌고, 세계관이 달라지지 않는 한 관성적으로 유지된다. 수평적 세계관과 종교관을 지닌 사회에 ‘생을 거둡하며, 삶의 모습이 바뀐다’는 식의 輪廻轉生觀이 제시된다면 기존의 세계관을 바꾸어 이를 받아들여든지, 배척하든지 선택해야 한다. 수평적 세계관을 지닌 채 윤회전생적 내세관을 수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불교적 내세관이 전제된 영주의 두 고분벽화는 무덤 주인의 세계관이 신라 사람들이 지니고 있던 기존의 세계관과 달라졌음을 알려준다. 신라에서 불교가 공인된 직후이거나, 공식적으로 전파가 용인된 지 오래지 않은 시점에 신라의 변경지역에는 이미 불교적 내세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다. 이는 고구려와의 접경 지역이던 영주 순흥 일대에서는 불교 신앙이 자리 잡은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을 시사한다. 영주 지역이 불교 신앙의 거점이 되지 않고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음을 두 고분벽화가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일선군에서 묵호자의 포교 활동이 있기 전 날이군에서 먼저 불교 신앙이 자리 잡기 시작했음을 순흥 읍내리벽화분과 어숙지술간묘 벽화가 확인시켜 주고 있는 셈이다.

18) 전호태,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사계절, 2000, 13~14쪽.

Ⅲ. 고고학·미술사학적 가치

1. 황혈식 석실묘 축조 문화의 전파와 정착

영주 순흥 일대는 신라 영역 안에서 황혈식 석실묘가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축조된 지역에 속한다. 황혈식 석실묘는 널방과 이어지는 널길이 설치된다는 점에서 황구식 석실묘와 구별된다. 신라에서 황혈식 석실묘는 변경지역에서 먼저 출현하여 서서히 수도권으로 전파되는 양상을 보인다. 신라의 변경지역에서 황구식 석실묘가 황혈식 석실묘로 바뀌어 축조되기 시작하던 5세기에 경주 일원에서는 중대형 적석목곽분이 조성되고 있었다.¹⁹⁾ 신라에서 대형 적석목곽분은 마립간시대를 상징하는 무덤 형식이기도 하다.

영주에서 발견된 2기의 벽화고분은 전형적인 황혈식 석실묘다. 벽화와 명문 내용으로 보아 영주 순흥 일대에서는 5세기 후반부터 황혈식 석실묘가 지방 유력자의 무덤 형식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런 양식의 무덤이 비교적 짜임새 있게 축조되던 6세기에는 무덤칸 벽과 천장에 벽화가 그려지고, 무덤 주인의 내세 삶과 관련된 그림이 천에 그려져 무덤칸 벽에 걸리거나 놓이는 일도 일어났다.²⁰⁾

5세기 영주 순흥을 중심으로 펼쳐진 황혈식 석실묘 축조 문화가 빠른 속도로 주변 지역으로 전해지지는 않는다. 순흥에서 멀지 않은 일부 지역에서는 이전과 다름없이 황구식 석실묘가 축조되었고, 심지어 수혈식 석곽묘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경주에서 가까운 일부 지역에서는 5세기 후반에도 여전히 수혈식 석곽묘가 만들어졌는데, 이는 황구식 석실묘의 축조를 추진할

19) 이한상, 앞의 논문, 2003, 1~34쪽.

20) 현지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어숙지술간묘 무덤칸에는 그림 흔적이 보이는 천이 일부 남아 있었다고 한다. 실제 무덤 널방 벽면 2~3곳에는 쇠뭇이 박혀 있었다.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앞의 책, 1984)

수 있을 정도로 힘 있는 지역 세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했을 것이다. 신라의 서울 경주에 가까울수록 중앙정부의 통제를 강하게 받게 마련이므로 지역 세력의 자율적 지배 역시 심하게 제약받아 새로운 양식의 무덤 축조가 사실상 어려웠던 까닭일 수도 있다.

영주의 2기 벽화고분은 상당히 짜임새 있게 축조된 황혈식 석실묘라는 점에서 죽령 이북에서 발견되는 고구려계 황혈식 석실묘와 비교된다. 더욱이 순흥 읍내리벽화분과 어숙지술간묘는 한반도 중부의 고구려계 석실묘에서 는 발견되지 않는 고분벽화가 무덤칸에 그려졌다는 점에서 순흥 지역 사회의 개방적이고 선진적인 외래문화 수용 양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순흥 일대에서 이른 시기부터 짜임새 있는 황혈식 석실묘가 축조되어 문화 전통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도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2. 장의 미술로서 고분벽화의 수용

수혈식 석곽묘 위주로 무덤이 만들어지고 경주의 지배층 중심의 적석목곽 분이 출현하는 신라 영역에서 장의 미술이 발전하기는 쉽지 않다. 중국의 전국<戰國> 및 진한<秦漢> 시기 무덤에서는 목관 안팎을 무늬나 그림으로 장식하거나 그림을 그린 천을 목관에 덮는 등으로 죽은 이의 내세 삶에 대한 소망을 표현하는 사례가 자주 확인되지만²¹⁾, 신라의 수혈식 석곽묘 등에서는 아직 이와 관련된 유물이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영주 순흥의 2기 벽화고분은 이런 점에서 특이하고 새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다.

6세기 신라의 수도 경주 일대에서 벽화고분이 만들어지지 않고 고구려와의 접경 지역인 순흥 일대의 황혈식 석실묘에 벽화가 그려진 것은 고구려의 영향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오랜 기간 고구려의 영역이던

21) 전호태, 『고구려 고분벽화의 세계』, 서울대출판부, 2004, 55쪽.

임진강 이남 한강 유역 전체에서 발견되지 않는 벽화고분이 유독 죽령 이남의 영주 순흥에 2기나 만들어진 것은 400년 전후부터 반세기 가까이 고구려와 신라가 맺고 있던 특별한 관계, 이로 말미암아 영주 순흥 일대 유력자들이 누리던 자율적 지배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죽령이라는 천혜의 요새지가 지역 경계인 영주 순흥에는 진한연맹체 시대에 강력한 소국이 성립되지는 못했으나, 경주 사로국이 진한연맹을 주도하게 되자 사로국 세력권의 경계를 이루게 되면서 오히려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하였다. 고구려와 같은 강대한 외부 세력이 사로국 세력권에 접근할 때에 내륙으로는 죽령을 거쳐야 했고, 신라가 외부세계와 접촉할 때에도 이 죽령 통로를 거쳐야 했을 것이다.²²⁾ 장수왕 시대에 고구려 세력이 영덕 인근까지 밀고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죽령 이남 길이 아닌 동해안 해안평야를 통해서였다.

갈등과 교류는 동전의 앞·뒤면 같아서 고구려의 남하를 제1선에서 막아 내는 역할이 주어진 영주 순흥지역은 고구려의 정치·사회적 압박과 문화·예술적 영향을 동시에 먼저 받는 곳이었다. 5세기 전반과 같이 외견상 고구려와 신라가 우호적 관계를 맺었지만, 내용상 신라가 고구려에 반<半> 속국 상태일 때, 고구려의 영향이 우선하여 미치는 곳은 영주 순흥지역일 수밖에 없다. 신라보다 사회·문화 제 방면에서 선진적이었던 고구려 문물의 혜택을 가장 먼저 받는 이들이 영주 순흥의 유력자들이었을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22) 377년 신라가 처음으로 중국의 前秦에 사신을 보낼 때, 사신은 죽령을 넘어 고구려에 이른 뒤 고구려 사신을 따라 전진에 이르렀음이 확실하다(『資治通鑑』卷104, 「晉紀」26 烈宗孝武皇帝上之中太元二年(377) 『太平御覽』卷781, 「四夷部」東夷2, 新羅); 280년 서진에 사신을 파견한 辰韓 왕은 斯盧國 이사금이었을 것이다(武帝太康元年(280) 其王遣使獻方物 二年(281) 復來朝貢 七年(286) 又來 『晉書』卷97, 「列傳」第67, 東夷辰韓). 이때에도 신라의 사신은 죽령 길을 거쳐 북으로 갔을 것이다; 박성현, 「5~6세기 고구려·신라의 경계와 그 양상」, 『역사와현실』 82, 2011, 60쪽.

고분벽화는 고구려에서도 지배계층 일부만 받아들인 외래의 장의 미술이었다. 5세기 고구려 지배층 사이에서 고분벽화가 유행하던 시기에도 벽화로 장식된 석실묘의 수는 제한적이었다. 이로 볼 때 5세기 신라의 변경지역에 수용되어 축조된 석실묘에 벽화가 그려지지 않은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6세기 영주 순흥의 석실묘에 벽화가 그려진 것은 신라로서는 새로운 문화 현상이다. 순흥지역 지배 세력이 불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이를 내면화하여 불교가 제시하는 새로운 내세관, 輪廻轉生과 往生淨土라는 관념을 수용하면서 일어난 문화적 사건에 가깝다. 수도 경주에서는 불교가 공인된 직후이거나, 공인을 둘러싼 지배 세력 사이 갈등의 여진이 일부나마 남아 있던 시기에 신라의 변경 영주 순흥에서는 불교적 내세관에 바탕을 둔 벽화가 황혈식 석실묘에 그려진 것이다. 새로운 유형의 장의 미술인 고분벽화가 변경에서 먼저 모습을 보인 셈이다.

3. 불교 미술의 전개

순흥 읍내리벽화분과 어숙지술간묘에 그려진 벽화는 내용상 불교 미술로 해석할 수 있다. 널길 동벽과 널방 서벽에 묘사된 붉은 몸의 문지기 역사에는 불교 사원의 입구를 지키는 천왕형 신장의 이미지가 투영되어 있다<그림 10>. 금강역사를 연상시키기도 하는 읍내리벽화분의 두 역사를 고구려 쌍영총 및 통구사신총의 문지기 역사와 비교해보면 이런 사실이 잘 드러난다<그림 11, 12>. 근육질 몸을 드러낸 채 눈을 부릅뜨고 입을 벌려 이빨을 드러내며 고함지르는 모습의 쌍영총 문지기 역사 두 사람은 각각 긴 칼과 창을 세워 짚거나 쥐고 있으며, 통구사신총의 문지기 역사는 한 손에 창을, 다른 한 손에는 불교 사원의 행사에도 쓰이는 소라 형태의 나팔을 들고 있다.²³⁾



<그림 10> 순흥 읍내리벽화분 널길 동벽 벽화 모사도: 문지기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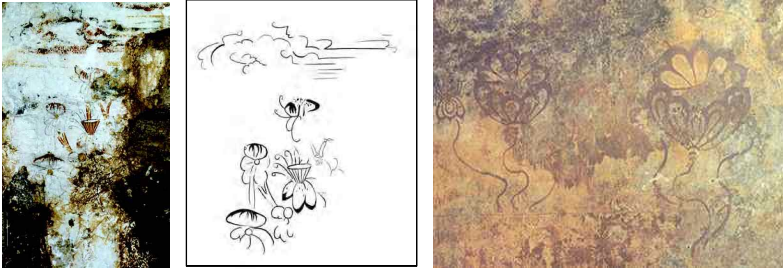
<그림 11> 집안 쌍영총 널길 벽화 모사도: 문지기 역사

<그림 12> 집안 통구사신총 널길 서벽 벽화 모사도: 문지기 역사

읍내리벽화분 널길 동벽에 그려진 역사도 눈을 부릅뜨고 입을 벌려 이를 드러내며 벽력 같은 소리를 내는 점에서는 삼실총 및 통구사신총 벽화의 역사와 다르지 않다. 이 역사는 고구려 고분벽화의 역사보다 더 붉고, 더 근육질 몸을 지녔다. 게다가 윗몸은 불교 특유의 右肩偏袒 차림이다. 귀족들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불교 신앙을 공인하였던 6세기 신라에서 이런 옷차림의 인물을 만나거나 상상하기는 쉽지 않다.

읍내리벽화분에 묘사된 연못 또한 귀족 저택의 멋을 더하기 위한 시설일 뿐 아니라 무덤 주인이 새 삶터로 삼기를 원하는 하늘세계나 정토의 풍경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그림 13, 14>. 무덤칸에 그려지는 그림이 무덤 주인이 기념할 만한 사건이나 장면을 재현한 것이자 죽은 뒤 누리기를 소망하는 새로운 삶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는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도 연꽃이 정토에서, 혹은 하늘세계에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생명의 요람으로 여겨져 그려졌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더욱 그렇다<그림 15>.²⁴⁾

23) 전호태, 『고구려 벽화고분』, 돌베개, 2016, 184쪽.



<그림 13> 순흥 읍내리벽화분 널방 북벽 벽화: 연못
<그림 14> 순흥 읍내리벽화분 널방 북벽 벽화 모사선화: 연못
<그림 15> 남포 덕흥리벽화분 널방 동벽 벽화: 연못

이런 시각에서 어숙지술간묘 널길 천장에 묘사된 활짝 핀 연꽃이 지닌 의미 역시 자명하다. 고구려 고분벽화의 사례를 고려할 때, 널길 천장을 장식한 연꽃은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불교 사원을 장식하는 연등이나 무덤칸의 연꽃에 부여된 의미와 기능은 같다고 하겠다.

기록상 신라 최초의 불교 사원은 왕명으로 지어진 경주의 흥륜사라고 할 수 있으나, 일선군의 유력자 모례가 고구려에서 온 승려 목호자를 위해 만들어 준 작은 토굴도 주어진 의미나 기능은 불교 사원과 다르지 않다. 벽화 내용으로 볼 때, 영주 순흥의 2기 벽화고분 또한 넓은 의미에서의 불교 사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무덤칸을 장식하는 연꽃은 세속의 공간과 出世間의 세계를 나누는 경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순흥의 2기 벽화고분에 몸을 낀 영주의 유력자들은 이 연꽃이 상징하는 새로운 공간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딘 신라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24) 전호태,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하늘연꽃」, 『미술자료』 46, 1990, 1~68쪽.

4. 6세기 신라 회화의 새로운 사례

영주 순흥 읍내리벽화분과 어숙지술간묘의 벽화는 6세기 신라 회화사의 한 장을 장식하는 작품이기도 하다. 현재까지 알려진 삼국시대 신라의 회화 작품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경주 천마총에서 수습된 말다래의 천마도는 고구려의 5세기 고분벽화의 麒麟과 비교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²⁵⁾

순흥 읍내리벽화분 널방 서벽에 그려진 역사는 5~6세기 고구려 고분벽화의 역사와 비교되는데²⁶⁾, 표현기법상으로는 5세기 고구려 고분벽화보다 수준이 떨어진다. 그러나 辟邪者로서의 이미지는 잘 살아 있으며 무덤으로 들어오려는 존재에게 달려드는 듯한 동세 표현도 제법 사실적이다. 이런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순흥 읍내리벽화고분에 그려진 역사가 6세기 신라 지방 화가의 솜씨였는지, 외부에서 초빙된 이의 작품인지는 판단하기 쉽지 않다.²⁷⁾

어숙지술간묘 널방 돌문 바깥 면에 묘사된 두 여인은 형상이 온전히 남아 있지 않다. 저고리 아래쪽에 허리띠가 표현된 것으로 보아 여인은 긴 저고리와 치마 차림이다. 부분적으로 남은 화려한 색감, 자연스럽게 흐르는 옷자락 선 등은 어숙지술간묘 벽화를 담당 한 화가의 회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짐작하게 한다.

25) 이재중, 「삼국시대 고분미술의 기린상」, 『미술사학연구』 203, 1994, 5~41쪽; 잘 알려진 말다래의 천마도는 기린을 묘사한 것으로 보이나, 이외 천마총 출토 유물 가운데에는 천마를 묘사한 사례도 확인되어 ‘천마총’이라는 무덤 명칭을 둘러싼 논란이 더는 계속되지 않을 듯하다<국립경주박물관, 『天馬, 다시 날다』, 2014>.

26) 이태호, 앞의 논문, 2010, 19~42쪽.

27) 문지기 역사를 묘사한 순흥 읍내리벽화분 벽화 화가의 필력은 천마총 부장 천마와 기린을 표현한 신라 서울 경주의 화가보다 앞선다. 어숙지술간묘 벽화를 그린 이의 필력은 더 말할 것도 없다. 6세기에 영주 순흥에서 고분벽화를 그린 이들이 신라의 화가였는지 의심스러운 것도 이 때문이다.



<그림 16> 순흥 어숙지술간묘 널길 천장 벽화: 연꽃
<그림 17> 남포 쌍영총 널방 천정석 벽화: 연꽃
<그림 18> 고령 고아리벽화분 널방 천장 벽화: 연꽃

어숙지술간묘 널길 천장에 그려진 연꽃은 5~6세기 고구려 벽화의 연꽃이나 백제, 가야의 연꽃 표현과 비교되는 것으로 이 그림을 그린 화가의 조형 능력이 돋보이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그림 16>. 7엽3중판에 잎맥까지 표현된 연꽃은 이 벽화에서만 보이는 까닭이다. 3중판, 4중판 연꽃은 5세기 후반 고구려의 평양권 고분벽화에 여러 차례 나타나고 가야의 고령 고아리고분벽화에서도 볼 수 있으나<그림 17, 18>²⁸⁾, 꽃잎 전체에 잎맥까지 나타난 사례는 순흥의 어숙지술간묘 벽화에서만 확인된다.²⁹⁾

신라보다 문화적으로 선진적이었고 문화 활동도 활발했던 것으로 보이는 백제에도 6세기 회화 작품이 제한적으로 전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영주의 2기 고분벽화는 신라의 회화로서뿐 아니라 삼국시대 후기 미술 작업의 결과물로서 지닌 의의가 크다. 더욱이 신라의 변경에서 이루어진 회화 활동의 결과물이라는 사실까지 염두에 두면 순흥의 2기 고분벽화가 지니는 예술사적 의의와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28) 전호태, 『백제와 가야의 고분벽화』, 『남한의 고분벽화』, 문화재연구소, 2019, 202~227쪽.

29) 전호태, 앞의 논문, 2020, 67~90쪽.

IV. 종교학·민속학적 가치

1. 6세기 신라 지방 불교의 현황과 역할

영주 순흥 읍내리벽화분과 어숙지술간묘 벽화는 신라의 변경에서 펼쳐지고 있던 종교 신앙의 변화가 궁극적으로 수도 경주에까지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하다. 수백 년에 걸친 동아시아 문화·사상의 큰 변동이 마침내 동북아시아 변경의 신라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데, 그 물결이 가장 먼저 닿은 곳이 소백산맥 죽령 남쪽의 영주 순흥이었을 것이다.

인도에서 비롯된 불교는 중앙아시아를 거쳐 동방으로 전하는 과정에 여러 유형의 문화와 예술, 종교 관념을 흡수한 상태로 중국과 초원 유목세계에 알려졌다. 바닷길을 통해 동방으로 전파되는 과정에도 지나치는 여러 지역의 종교 관념과 문화, 예술을 하위문화로 받아들인 종교·문화·예술 복합체로 동방에 전해졌다.³⁰⁾ 전파 통로로 보아 죽령 이남으로 전해진 불교는 고구려를 거친 북방불교였다.

놀지마립간 때에 신라로 들어와 일선군 모례에게 의탁했다는 불교 승려 목호자는 이름만으로도 본래는 서역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목호자는 지금의 중앙아시아 어딘가에서 출발해 고구려에 이르렀다가 신라까지 들어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³¹⁾ 경로로 볼 때, 목호자는 백제 영역을 거치기보다 고구려 영토에서 바로 신라 땅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 목호자가 죽령을 넘어 영주 순흥에 이르렀다가 더 남쪽의 일선군에 왔을 것으로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영주 순흥에 온 불교 승려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읍내리벽화분과 어숙지술간묘 벽화는 신라에서 가장 먼저 불교 신앙을 받아들여 이를 내면화한 이들이

30) 전호태, 『고대 한국의 풍경』, 성균관대출판부, 2021, 249~250쪽.

31) 전호태, 『비밀의 문 환문충』, 김영사, 2014; 전호태, 『황금의 시대 신라』, 풀빛, 2019.

이곳에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신라의 다른 지역에서는 낫철 수밖에 없는 우견편단 복장의 읍내리벽화분 벽화의 역사는 영주 순흥의 불교 신자들이 이런 차림의 불상이나 승려에 대해 알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모본<模本>을 바탕으로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할지라도 벽화를 그린 화가 역시 이런 특이한 복식의 인물이나 불상과 마주친 사실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불교적 내세관에 바탕을 두고 그려진 영주 순흥의 2기 고분벽화는 전래 이후 1세기 가까운 시간의 흐름 속에 신라의 변경에서 이루어진 불교 신앙의 내면화 과정을 생생히 드러내는 증언이라고 할 수 있다.

2. 재생력을 지닌 신수로서의 뱀에 대한 신앙

영주 순흥 읍내리벽화분 널방 서벽의 역사는 머리 위로 뱀 한 마리를 치켜들고 있다. 두 귀가 뚜렷이 표현된 이 뱀은 목에 띠가 둘러져 있어 마치 집에서 키우는 짐승처럼 보이기도 한다<그림 19>. 역사의 손에 잡힌 뱀은 놀란 표정도 아니다. 머리를 돌려 역사의 눈길에 향한 널방 입구 쪽을 보고 있어 역사와 마음이 통한 듯이 느껴지기도 한다.

고대사회에서 뱀은 재생력을 지닌 不死의 영물로 여겨졌다. 한국의 민속에서 구렁이는 집을 지켜주는 지킴이 신으로 신앙의 대상이기도 했다. 고구려 삼실총 벽화의 역사들도 목이나 다리에는 뱀이 걸리거나 감겨 있다<그림 20>.³²⁾ 울산 천전리 각석에는 엎드린 상태의 용이 묘사되었는데, 머리에 귀가 둘 달렸다<그림 21>.³³⁾ 천전리 각석에 묘사된 용이 뱀 신앙에서 비롯된 존재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³⁴⁾

32) 전호태, 「고구려 삼실총 벽화 연구」, 『역사와 현실』 44, 2002, 1~28쪽.

33) 전호태, 「울산 천전리 서석 암각화의 용」, 『한국고대사연구』 77, 2015, 77~105쪽.

34) 전호태, 『글바위 하늘의 문』, 진인진, 2020, 117~121쪽.



<그림 19> 순흥 읍내리벽화분 널방 서벽 벽화 모사도: 뱀
 <그림 20> 집안 삼실총 제3실 동벽 벽화 모사도: 역사
 <그림 21> 울산 천전리 각석 세선각화 모사선화: 엮드린 용

읍내리 고분벽화의 역사가 두 손으로 잡은 뱀도 무덤 안으로 숨어들려는 사악한 존재이기보다는 재생력을 지닌 지킴이로 그려졌을 가능성이 크다. 신라와 이웃한 가야 지역의 만어사에는 나찰녀와 함께 불법 전파를 방해하던 毒龍을 제압하자 동해의 魚龍들이 골짜기에 가득한 돌이 되어 종과 경쇠 소리를 낸다는 오랜 이야기도 전하지만³⁵⁾, 본래 석가모니 붓다의 깨달음과 가르침을 방해하던 용들이 붓다를 지키고 불법의 전파를 돕는 수호자로 바뀐 것처럼 불교 신앙 안에서 뱀과 용은 붓다의 가르침과 함께 가는 존재로 인식된다. 영주 읍내리고분벽화의 뱀도 이와 같은 의미와 역할이 부여된 영물로 인식되고 그려진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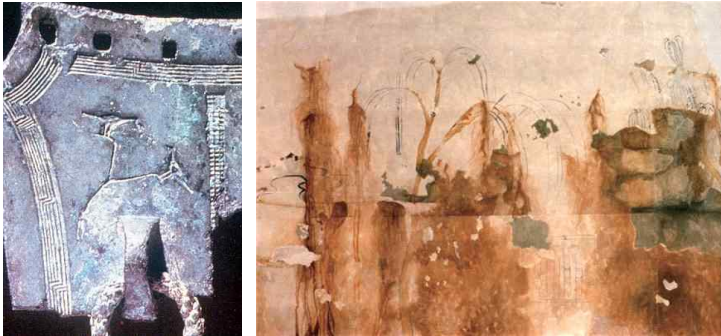
3. 벽사의 신목으로 인식된 버드나무

고려 불화의 水月觀音圖에는 버드나무 가지가 꽃힌 淨瓶이 등장한다. 이

35) 當此時境內有玉池，池有毒龍焉。萬魚山有五羅刹女往來交通。故時降雷雨歷四年五穀不成。王呪禁不能，稽首請佛說法然後羅刹女受五戒而無後害。故東海魚龍遂化為滿洞之石，各有鍾磬之聲<『三國遺事』卷3, 「塔像」4, 魚山佛影>.

버드나무 가지는 본래 사악한 존재를 물리치는 데에 쓰는 神木이었다. 지금도 한국의 민속에서 버드나무 가지는 귀신을 쫓을 때 사용한다. 선비족이나 말갈족, 거란족 등 삼국시대 역사에 등장하는 고대 동북아시아의 여러 민족은 제천행사 때에 버드나무를 신목으로 썼다.³⁶⁾

삼국시대 고구려의 건국 시조 주몽의 어머니 이름은 버들꽃 유화다. 하백의 딸 유화가 부여 사람들의 버드나무 신앙과 관련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³⁷⁾ 몽골 전통신앙의 대상이기도 한 오보는 대전 괴정동 출토 농경문 청동기 장식무늬로도 확인되는 삼한시대 馬韉의 솟대와 기능과 역할이 같다는 평가를 받는다<그림 22>. 이 오보 꼭대기에 꽃아두는 것도 버드나무 가지이다.



<그림 22> 대전 괴정동 출토 농경문 청동기: 솟대의 새

<그림 23> 순흥 읍내리벽화분 널방 서벽 벽화 모사도: 버드나무

읍내리 벽화고분 널방 서벽 상단에는 구름 사이로 높이 솟은 거대한 버드나무가 묘사되었는데<그림 23>, 이 버드나무 역시 신목으로 여겨졌을 가능

36) 최혜영, 「버드나무 신화소를 통해 본 유라시아 지역의 문명 교류의 가능성 혹은 그 接點」, 『동북아역사논총』 22, 2008, 187~217쪽.

37) 박원길, 『유라시아 초원제국의 샤머니즘』, 민속원, 2001, 81~84쪽.

성이 크다. 버드나무 곁에 표현된 시설물이 우물이라면 그림 속의 버드나무를 신목으로 해석할 여지는 더 커진다. 읍내리 벽화고분에 그려진 여러 제제가 무덤 주인의 내세관과 관련 있음을 고려할 때, 벽사의 힘을 지녔다고 믿어진 버드나무가 벽화의 제재로 선택된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4. 신분, 지위 및 소속 집단의 상징으로 쓰인 귀걸이

순흥 읍내리벽화분 널방 서벽에 묘사된 역사는 귀에 가는 고리 귀걸이를 걸고 있다<그림 24>. 심엽형 드림이 달린 이 귀걸이는 보조 장식과 심엽형 드림이 잘 어우러진 까닭에 피어나려는 연꽃 봉오리가 거꾸로 달린 듯이 보이기도 한다. 역사의 귀에 걸린 이런 형태의 귀걸이와 비교될 수 있는 것이 경주 노서동고분에서 출토되기도 했지만³⁸⁾, 세부에서는 차이가 뚜렷하다. 심엽형 드림만 달린 가는 고리 귀걸이는 고구려 유물 중에도 보인다<그림 25>. 순흥 읍내리고분군에서는 굵은 고리 귀걸이와 가는 고리 귀걸이가 모두 출토되었는데³⁹⁾, 역사의 귀에 걸린 것보다 단순한 양식의 것이다.

동서를 막론하고 고대사회에서 귀걸이는 소속 집단 및 신분과 관련이 깊다. 아시아의 유목사회와 수렵사회에서는 귀걸이로 종족과 지위를 가려냈으며 남자들이 금제나 은제 귀걸이를 한 채 공사<公私>의 업무를 보는 것을 당연히 여겼다.⁴⁰⁾ 부여, 고구려, 신라의 남자들도 귀에 귀걸이를 했고, 이런 관습은 후대의 고려, 조선으로 이어졌다. 경주의 중대형 적석목곽분에서 정교하게 다듬고 장식한 금제 및 금동제 귀걸이가 다수 출토되고 있음은

38) 이한상, 『황금의 나라 신라』, 김영사, 2004.

39) 文化財研究所, 『順興 邑內里 古墳群 發掘調査 報告書』; 이한상, 앞의 논문, 2003, 1~34쪽.

40) 전호태, 앞의 책, 2021, 190쪽.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림 24> 순흥 읍내리벽화분 널방 서벽 벽화 모사도: 역사의 귀에 걸린 귀걸이
<그림 25> 집안 신성하고분군 출토 가는 고리 귀걸이

읍내리벽화분의 역사가 귀에 보조 장식과 드림이 드리운 귀걸이를 한 것은 평범한 존재가 아님을 나타내기 위해서인 듯하다. 화가는 이 역사가 神將이나 天王子라는 사실을 드러내려고 귀걸이를 표현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당대의 관습이기도 했으므로 화가로서는 무덤 주인의 내세 공간을 지키는 역사의 위상을 잘 드러냄으로써 죽은 이의 생전 지위, 혹은 내세에서의 우아하고 가치 높은 삶을 보여주려고 했을 수 있다.

V. 맺음말

영주 순흥에서 발견된 읍내리벽화분과 어숙지술간묘의 구조와 벽화는 역사학이나 고고학, 미술사학 방면에서뿐 아니라 종교학적, 민속학적 의의와 가치도 지니고 있다. 역사학적 측면에서 우선 거론할 수 있는 것은 두

고분이 6세기 영주 지역문화의 양상을 잘 보여준다는 사실이다. 특히 고구려로부터 전해진 불교가 신라에 확산되는 과정에서 영주 순흥 일대가 새로운 종교 신앙 전파의 거점이자 통로로서 주요한 역할을 했음을 확인시켜 준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고학 및 미술사학 측면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수혈식 석곽묘가 주로 축조되던 신라 영역에서 횡구식 석실묘 양식이 수용되고, 나아가 횡혈식 석실묘가 수용, 확산되는 과정이 영주 순흥지역 고분에 잘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5세기 후반 이후 순흥에 나타나는 횡혈식 석실묘는 축조 기법상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영주 순흥의 2기 고분벽화는 신라에 새로운 장의 미술이 수용되었음을 보여주지만, 이후 이런 장르가 신라의 수도 경주에까지 전파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한 사회에서 새로운 미술 장르의 수용과 확산에는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요소가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읍내리벽화분과 어숙지술간묘 벽화는 불교적 제재를 주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6세기 신라에도 불교 미술 활동이 있었음을 알게 한다. 또한 두 고분벽화의 개별 제재에 적용된 표현기법은 6세기 신라 회화가 이웃 백제나 가야 등에 비해 뒤쳐지는 수준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종교학적 측면에서 영주 순흥의 2기 고분벽화는 6세기 신라 지방 불교의 현황을 알게 해준다는 의미를 지닌다. 영주 순흥지역에 수용된 새로운 종교가 이 신앙에 귀의한 자들이 전래의 내세관을 대신하는 불교적 내세관을 내면화하고 이를 고분벽화라는 새로운 미술 장르로 표현하는 데에 이르게 했음을 2기의 유적이 보여주고 있다. 영주 순흥에서는 신라의 중앙에서 새로운 종교인 불교를 공인할지를 두고 왕실과 귀족, 귀족과 귀족 사이에 갈등이 일고 있을 즈음에는 이미 지역 사회의 큰 흐름이 불교 신앙으로 기울었다고 할 수 있다.

민속학적 측면에서 읍내리벽화분과 어숙지술간묘 벽화는 재생력을 지닌 신수로서의 뱀에 대한 전통적 신앙이 불교라는 새로운 종교 안에 흡수되어

그 일부로 자리 잡기 시작했음을 알려준다.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가 주변 사회로 확산되면서 지역 사회의 관념과 문화를 수용하고 재해석하여 그 일부가 되게 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신라에 전파된 불교 역시 특유의 문화 포용력으로 기존의 민속과 관념을 불교 신앙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이를 통해 알 수 있다.

순흥 읍내리벽화분에 그려진 버드나무는 내륙아시아와 동북아시아 제 민족에게 벽사의 신목으로 신앙되었던 버드나무에 대한 관념이 불교 신앙의 일부로 수용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읍내리벽화분 널방 서벽의 역사가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 역시 한 사회의 민속이 불교 신앙의 일부로 수용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사실 귀걸이는 불교 미술에서도 낯설지 않은 장신구이다. 읍내리벽화분 벽화에 그려진 역사의 귀에 걸린 귀걸이 역시 신분과 지위, 소속 집단을 드러내는 표식이다. 이 귀걸이는 무덤 주인을 지키는 역사의 위상을 확인시킴으로써 무덤 주인의 생전 지위와 주인이 누리는 내세 삶의 가치를 알려준다고 할 수 있다.

도판목록

- <그림 1> 순흥 읍내리벽화분 무덤간 실측도
- <그림 2> 순흥 어숙지술간묘 무덤간 실측도
- <그림 3> 순흥 읍내리벽화분 널길 동벽 벽화 모사도: 문지기 역사
- <그림 4> 순흥 읍내리벽화분 널방 서벽 벽화 모사도
- <그림 5> 순흥 읍내리벽화분 널방 북벽 벽화 연못
- <그림 6> 남포 성총 널방 서벽 벽화 화생 직전의 연꽃
- <그림 7> 집안 통구12호분 남분 천장고임 벽화 연꽃
- <그림 8> 순흥 읍내리벽화분 널방 시상대 벽화 모사도
- <그림 9> 쿠차 키질 석굴사원 벽화 여래본생담
- <그림 10> 순흥 읍내리벽화분 널길 동벽 벽화 모사도: 문지기 역사
- <그림 11> 집안 쌍영총 널길 벽화 모사도: 문지기 역사
- <그림 12> 집안 통구사신총 널길 서벽 벽화 모사도: 문지기 역사
- <그림 13> 순흥 읍내리벽화분 널방 북벽 벽화: 연못
- <그림 14> 순흥 읍내리벽화분 널방 북벽 벽화 모사선화: 연못
- <그림 15> 남포 덕흥리벽화분 널방 동벽 벽화: 연못
- <그림 16> 순흥 어숙지술간묘 널길 천장 벽화: 연꽃
- <그림 17> 남포 쌍영총 널방 천정석 벽화: 연꽃
- <그림 18> 고령 고아리벽화분 널방 천장 벽화: 연꽃
- <그림 19> 순흥 읍내리벽화분 널방 서벽 벽화 모사도: 뱀
- <그림 20> 집안 삼실총 제3실 동벽 벽화 모사도: 역사
- <그림 21> 울산 천전리 각석 세신각화 모사선화: 엮드린 용
- <그림 22> 대전 괴정동 출토 농경문 청동기: 솟대의 새
- <그림 23> 순흥 읍내리벽화분 널방 서벽 벽화 모사도: 버드나무
- <그림 24> 순흥 읍내리벽화분 널방 서벽 벽화 모사도: 역사의 귀에 걸린
귀걸이
- <그림 25> 집안 산성하고분군 출토 가는 고리 귀걸이

참고문헌

- 『三國史記』, 『三國遺事』, 『晉書』, 『資治通鑑』, 『太平御覽』.
- 국립경주박물관, 2014, 『天馬, 다시 날다』.
- 김원룡, 『韓國壁畫古墳』, 일지사, 1980.
- 김재홍, 「함안 성산산성과 출토 목간의 연대」, 『木簡과文字』 22, 2019.
- 金賢淑, 「4~6세기경 小白山脈 以東地域의 領域向方 三國史記 地理志의 慶北地域 高句麗郡縣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26, 2002.
- 문화재연구소, 『순흥 읍내리벽화고분』, 1986.
- 文化財研究所, 『順興 邑內里古墳群 發掘調査 報告書』, 1994.
- 문화재연구소·대구대학교박물관, 『순흥 읍내리벽화고분 발굴조사보고서』, 1995.
- 박성현, 「5~6세기 고구려·신라의 경계와 그 양상」, 『역사와 현실』 82, 2011.
- 박원길, 『유라시아 초원제국의 샤머니즘』, 민속원, 2001.
- 신종원, 『삼국유사 깊이 읽기』, 주류성, 2019.
- 안휘준, 「기미년명 순흥 읍내리고분벽화의 내용과 의의」, 『순흥읍내리벽화고분』, 1986.
- 이재중, 「삼국시대 고분미술의 기린상」, 『미술사학연구』 203, 1994.
- 이태호, 「高句麗와 新羅 미술이 공존하는 榮州 順興의 邑內里壁畫古墳과 台庄里 於宿墓」, 『미술자료』 79, 2010.
- 이한상, 「읍내리 분묘군의 편년을 통해 본 5세기 순흥지역의 위상」, 『역사문화연구』 19, 2003.
- 이한상, 『황금의 나라 신라』, 김영사, 2004.
-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영주 순흥벽화고분 발굴조사보고』, 1984.
- 전호태,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하늘연꽃」, 『미술자료』 46, 1990.
- 전호태,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사계절, 2000.
- 전호태, 「고구려 삼실총 벽화 연구」, 『역사와 현실』 44, 2002.
- 전호태, 『고구려 고분벽화의 세계』, 서울대출판부, 2004.
- 전호태, 『비밀의 문 환문충』, 김영사, 2014.
- 전호태, 「울산 천전리 서석 암각화의 용」, 『한국고대사연구』 77, 2015

- 전호태, 『고구려 벽화고분』, 돌베개, 2016.
- 전호태, 「백제와 가야의 고분벽화」, 『남한의 고분벽화』, 문화재연구소, 2019.
- 전호태, 『황금의 시대 신라』, 풀빛, 2019.
- 전호태, 「영주 신라 벽화고분 연구」, 『선사와 고대』 64, 2020.
- 전호태, 『글바위 하늘의 문』, 진인진, 2020.
- 전호태, 『고대 한국의 풍경』, 성균관대출판부, 2021.
- 주보돈, 「삼국유사 ‘射琴匣’條의 이해」, 『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 <신라 내물왕계와 중고기의 비약적 발전>』, 2019.
- 진홍섭, 「新羅於宿述干墓發見의 意義」, 『梨大學報』 447, 1971.
- 최혜영, 「버드나무 신화소를 통해 본 유라시아 지역의 문명 교류의 가능성 혹은 그 接點」, 『동북아역사논총』 22, 2008.

Abstract

VALUE AND SIGNIFICANCE OF SUNHEUNG SILLA MURAL
TOMBS AT YEONGJU

JEON HOTAE (JEON, HO TAE)

Sunheung Eupnae-ri Mural Tomb and Eosukjisulgan (於宿知述干) Tomb at Yeongju were all found within Silla territory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That tomb murals which were not produced in the central Silla were made in the border regions intrigue much interest. Sunheung served as a strategic point south of Jukryeong, where Silla bordered Koguryo. Silla's Maripgan (麻立干) patrolled Sunheung regions in order to give some autonomy to regional powers in exchange of their services in border security.

Koguryo and Baekjae's monks seem to have begun missionary work in early 5th century at the latest in outskirts of Silla. Mukhoja (墨胡子) and Ado (阿道) are among such missionaries. However, until the first half of the 6th century, Buddhism did not gain national support in Silla. The regional aristocrats who practiced Buddhism likely could not declare it publicly until the early 6th century.

The murals of Eupnae-ri Mural Tomb and Eosukjisulgan Tomb shows that the Buddhism that reached Sunheung had changed the views of afterlife by the 6th century. Some regional aristocrats desired rebirth in the Pure Land[Nirvana] as described in Buddhism and expressed such wishes in murals. The murals of Eupnae-ri Mural Tomb and Eosukjisulgan Tomb show the

evidence of such ideas.

The subject choice and painting style suggests that the painters of Eupnae-ri Mural Tomb painted the guardians, bird inside the Sun and the willow trees in a typical early 6th century methods. The lotus blossoms and celestial maidens in Eosukjisulgan Tomb date to late 6th century. Both tomb murals seem to have been painted certain period after the national endorsement of Buddhism in Silla.

Key Words : Silla, Buddhism, Sunheung Eupnae-ri Mural Tomb, Eosukjisulgan (於宿知述干) Tomb, regional culture